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정책 포럼

“디지털 콘텐츠 확대하고 자유롭게 공유해야”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안전한 지식정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 도서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0 도서관정책포럼을 비대면 개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파생된 공공도서관 현장의 고민과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혜란 중앙도서관장은 '현재가 된 미래, 도서관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주제 발표에서 "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 웹 자원, 스트리밍 자원, 소셜 미디어 자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자원 등 전통적 출판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도서관 장서에 비용효과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쇄본이 장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이 많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사용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도서관에 끼친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처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었다.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국가전자도서관의 상반기 이용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8% 증가했다. 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책 등 각종 디지털자료 이용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자료 816만531건(52.6%), 전자저널 481만3896건(31%)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황은 충분한 콘텐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날로 그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의 원문DB 구축 비율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관장은 "정부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인해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속도는 좀 더 빨라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도서관은 질 높은 디지털화와 함께 본문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변환과 본문 속표와 그림 데이터 추출 등 디지털화 자료의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은 창의적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순천 기적의 도서관 내부 모습. <광주일보 자료>

서혜란 관장 “도서관 밖서 자료 접근 가능한 저작권법 필요” 조한혜정 교수 “시민 어우러지는 ‘제3의 공간’ 역할 모색도”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강화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다. '저작권법' 제31조는 이용자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 일부 디지털 복제물을 도서관 밖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는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자료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조사·연구 및 학습 목적으로 도서관 밖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은 '글로벌 디지털 시대 '살아 있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조 교수는 시민들의 창의적 공유지로서의 도서관을 강조했다. 즉 디지털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었고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괄목할 활약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도서관의 기능을 책 중심으로 한

개인의 독서에 국한시킨다면 도서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곳이 되었다"며 "시대변화를 속도감 있게 따라가는 지식생산과 축적과 순환의 플랫폼으로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근의 물리적 만남이 금지된 상태에서 도서관은 어떤 진화를 해야 할까? 조 교수는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주장했던, '제3의 공간'을 제시했다. "자발성과 비공식성을 담보한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뜻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주목했다.

조 교수는 "가정을 뜻하는 제1의 공간과 일터를 뜻하는 제2의 공간과 달리 제3의 공간은 가정과 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며 "시민들이 어우러지고 행복하게 '작당'하는 '제3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시 사람을 중심으로 문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역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태일문학상에 담양 출신 손택수 시인

‘붉은빛이 여전합니까’...12일 조태일시문학기념관서 시상식

담양 출신 손택수(사진) 시인이 제2회 조태일문학상에 선정됐다. 수상 작품집은 '붉은빛이 여전합니까'이며 상금은 2000만원.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죽형 조태일시문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는 제2회 조태일문학상에 손택수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 시집은 유희와 수다에서 벗어났기에 누구나 읽으면 언어들이 가슴을 탁 쳐오는 힘이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기록이면서도 이 사회와 부딪치는 저항을 그치지 않는 서정시로서 위의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번 조태일문학상에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132권의 시집이 접수됐다. 예심에는 염창권·이대흠·김종일 시인이, 본심에는 김희수·김진경·노철 시인이 참여했다.

손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고향을 떠나올 때 고운 '광주고속'의 아이콘은 기억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고속의 질주가 위태롭게 다가오는 이때, 등에 짊어진 균열을 일생을 다해 해독해야 할 갑골문으로 삼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1970년 담양에서 출생한 손 시인은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시집 '나무의 수사학', '목련 전차' 등을 펴냈다. 제22회 신동엽문학상, 제3회



에지문학상, 2007 오늘의젊은예술가상, 제13회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노작사용문학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제2회 조태일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조태일 시인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된다. 고인의 21주기(양력 9월 7일)를 맞아 '타는 가슴으로 눈을 감으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세계를 기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군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된다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7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이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 송대가 분포하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대나무가 식용뿐 아니라 전통유공식품자원으로서 생활문화와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고려됐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만큼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증' 등 문헌에 따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돼 있다.

아울러 담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의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보육이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축제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입구.

역동적인 여성의 몸짓 '그날의 향기'

이승희 작가 개인전, 15일까지 LH 휴랑갤러리

'추상으로 표현한 자유로운 여성의 몸짓.' 이승희 작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도지주박물관 광주·전남 본부 LH휴랑갤러리(광주시 서구 시청로 91)에서 열린다.

'그날의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오랫동안 그려온 인체 드로잉 등 다채로운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광주의 대표 크로키 그룹인 토만사 크로키회 활동 등을 통해 꾸준한 드로잉 작업을 하며 매력에 빠진 이 작가는 이번에는 판화 기법을 활용한 색다른 시도를 모색했다.

지금까지 화폭에 자유분방한 선으로 드로잉 작업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 드로잉이 된 그림을 잘라낸 후 뿔뿔이 찢어낸 판 사이에 물감

을 뿌려 또 다른 드로잉 작품을 겹쳐 추상적 느낌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작품 속에서는 변화무쌍한 여체를 만날 수 있다. 드로잉 작업을 오래 하면서 손에 익은 자연스러운 필치로 표현해낸 여성의 자유로운 몸짓은 화면에 울동감을 부여하며 무엇보다 화려한 색감이 돋보인다.

그밖에 다채로운 색감이 눈의 띄는 추상 작품과 단순한 선으로만 여성의 특징을 잡아낸 누드 크로키 작품도 전시돼 있다.

지금까지 6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이 작가는 남농미술대전 등에서 특선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토만사 크로키회, 사생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4월에는 10일간 북구정 갤러리에서도 개



'무제'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중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시리즈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서 등교 및 긴급돌봄 중단 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아동이 입원해 있는 병

원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병 간호, 복약 돕기, 정서적 지원(놀이·책 읽어주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광주여성가족재단(1899-5912)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